

## 둘째 사람 예수님 II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다른 말은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져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둘째 사람의 정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로 새로운 인류의 시조임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 1.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두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그 첫번째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로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타락한 인류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22-24 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 할 때, 옛사람을 *palaios anthropos*, 새사람을 *kainos anthropos* 라고 부릅니다. *Anthropos* 는 “인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옛인류를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류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벗어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것 영적인 것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6 장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 때도 옛사람을 palaios anthropos,라고 부릅니다. 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되—(롬 7:22)” 이서도 eso anthropos 라고 하여인류, anthropos 를 씁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옛인류에 속한 구질서를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류에 속한 새로운 질서를 받아 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시조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육의 삶이 아닌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에 있다 영에 있다 하는 것은 육에 속한 행동을 한다, 영에 속한 행동을 한다는 개념을 넘어, 그 사람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그 Origin 을 말합니다.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육에 있는 자라는 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아담의 후예인 자연인을 말하며,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한 말은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또 둘째 사람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릅니다.

빌립보서 3 :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2. 사람으로서의 둘째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화의 절대적 모범을 보여 줍니다. 성화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가 누구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절대적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8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사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째 사람을 따라 너희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 :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 3.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유사이래 수많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길은 모두 흠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이 아닙니다. 땅이 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 길입니다. 둘째 사람을 따라 하늘의 것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신 둘째 사람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선생의 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 부터 오셔서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둘째 사람 하나 뿐이 없습니다.

하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뿐 뿐이 없습니다.

4. 다음에 둘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둘째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 구약에서 명령되어 오던 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4)”

석가모니처럼 거룩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케 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 지라는 말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둘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 :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 :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둘째 사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므로 우리에게 복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충만으로 살게 됩니다. 육에 속한 것을 따라 흉에 속한 것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 : 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 :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하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둘째 사람 처럼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5.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둘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둘째 사람의 인격은 이성일위의 인격입니다. 이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일위는 하나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성일위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의 두개의 본성이 있지만 두 본성이 투쟁이나 갈등이 없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본성이 두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나 투쟁이 없이 하나의 의지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하여,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의 의지는 신성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했으니, 둘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신성의 의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의 실현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개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성일위나,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둘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몸소 사심으로 우리에게 복되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우리의 전인격을 성령이 지배하면 둘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의 실현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면 둘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